

논문개요

자연현상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인간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연현상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자연현상중의 하나인 오로라를 대상으로 삼아 오로라가 인간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본인이 느낀 감정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로라는 대부분 푸른색, 초록색, 붉은색 빛의 패턴으로 파도 모양과 같이 때로는 커튼모양 같이 여러 겹 겹쳐진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오로라의 특성을 장식조명에 적용하여 오로라가 가지는 시각적, 심리적 느낌을 주제로 장식성이 강한 장식조명등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조명등의 역할은 단순히 주변을 밝히는 역할과 또는 조명등 자체의 조형성으로 인한 조명의 기능 이외에 장식물로의 역할을 하는 조명이 있는데 본 연구자는 오로라라는 조형대상을 조명등에 적용하여 조명으로서의 원래의 기능보다는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장식성을 강조한 장식조명등 제작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오로라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다채로운 감정을 오로라의 시각적 단순화 등의 변형을 통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리된 형태로 오로라의 느낌에 의한 조명등 기능을 가진 조형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2
II. 본론	3
1. 조형 소재로의 오로라	3
2. 조형 이미지전개	5
3. 작품 설명	7
III. 결론	23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해질 무렵	7
[작품 2] 고요한 아침	9
[작품 3] 여신의 머리카락	11
[작품 4] 동틀 무렵	13
[작품 5] 찰랑거리는 여신의 드레스	15
[작품 6] 피요르드	17
[작품 7] 계곡사이사이 마다	19
[작품 8] 오색찬란한 물방울	21

I. 서론

1. 연구 목적

오로라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런 오로라와 같은 자연현상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지만 지진, 홍수, 화산과 같은 자연현상은 인간에게 고통을 느끼게도 한다. 이는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성이라 할 수 있다.

오로라는 어떤 모습인가. 북극의 가을 하늘 아래 춤추는 오로라, 과도무늬와 비틀리며 꼬이는 모습들은 커튼을 따라 춤을 춘다.

새벽에 땅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오로라의 오묘한 색깔을 보고 있노라면 예술적 영감이 절로 떠오른다. 북극하늘의 신비로운 자연현상인 오로라.

이렇듯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로라란 대상을 바라볼 때 환상적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여건들을 바탕으로 오로라를 바라보았을 때 느껴지는 오로라의 아름다움을 장식 조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오로라라는 대상을 조형화함에 있어서 대상의 외형적인 형상의 묘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오로라가 생성되는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로라의 이미지와 적절하게 조화시켜 하나의 장식조형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연현상인 오로라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 편안함, 고요하면서 환상적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장식조명등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조형적 측면, 재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형적 측면에서는 사람이 느끼는 자연 현상 중 오로라의 실제적 형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조형화 과정을 통해서 장식조명으로 표현할 것인지 연구하고, 재료적 측면에서는 철, 황동, 적동, 등으로 자연 경관을 표현하였고, 아크릴에 유기적으로 반복된 패턴을 사용하여 오로라가 가지는 시각적 특성을 표현하여 장식 조명으로 형상화 전개하였다.

II. 본론

1. 조형 소재로의 오로라

오로라란, 새벽이란 뜻의 라틴어로, 1621년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 가센디가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 아우로라(Aurora, 그리스 신화의 에오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새벽의 여신이라는 의미도 있다. 극광(極光)이라고도 부르고, 북반구에서는 노던 라이트(northern light)라 부르기도 하며, 동양에서는 적기(赤氣)라고도 한다.

조형소재로서의 오로라는 일반적으로 환상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나타나는 모양은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인 색은 녹색 혹은 황록색으로 때로는 적색, 황색, 청색과 보라색이 보이기도 하며 그 형태는 파도모양 또는 커튼모양과 같이 일정한 패턴은 없으나 그러한 모양들이 중첩, 반복되면서 다양한 형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오로라는 그 생성과 형태와 색채에 있어 신비로움의 대상이며, 몽환적분위기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희망적 메시지로 많이 비유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자는 이러한 오로라의 특징을 살려 오로라의 시각적, 심리적 느낌을 연구를 통해 조형화 하고자 한다.



그림 1 북유럽에서 목격된 오로라



그림 2 북극에서 목격된 오로라

2. 조형 이미지전개

사람들은 오로라를 봤을 때 편안함, 고요함, 신비감, 쓸쓸함, 환상적, 몽환적인 분위기를 인간으로 하여금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루시 리처즈의 소설 『아기곰 로리와 오로라』에는 “엄마는 오로라가 하늘이 부리는 마술이라고 했어요./차가운 밤하늘을 빛내는 아름다운 빛은 정말 멋졌어요.” 라는 문구를 통해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했고 노희주의 시집 『춤추는 오로라』에서 “북극의 가을 하늘 아래 춤추는 오로라”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로라를 보았을 때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노명순의 시집 『서천』에서 오로라를 희망으로 표현하였다.

몽크의 전반적인 작품의 배경이 오로라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미지에서 빛 바랜듯한 붉은 색은 마치 오로라의 극광처럼 너울거리며 현실공간조차 환상의 환영을 바라보는 듯 한 몽환적 느낌을 준다. 이러한 느낌은 1893년 작품 『절규』, 1894~1895년 작품 『마돈나』, 1894년 작품 『분열』 분열에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오로라란 대상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 편안함, 고요함, 쓸쓸함, 환상적인 이미지, 몽환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오로라 자체를 관찰대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라 그 자체의 이미지가 비유적인 사고를 통해 감성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비유적인 사고는 본 연구자의 감성과 일치하였다. 또한 오로라가 주로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빛을 발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은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노란색은 빛의 느낌과 밝은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긴장감을 높여준다. 보라색은 우아하면서도 고상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외로움이나 슬픔을 연상시키며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미지 전개에 있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자가 오로라를 보았을 때 느낀 감정과 그 외에 오로라가 형성된 환경을 시각화하여, 해질 무렵 이른 아침에 하늘 위에 수놓아진 오로라, 빙산 위의 조용하고 깨끗한 느낌의 오로라, 동틀 무렵 빙산 위에 걸쳐져있는 황금빛의 오로라, 여신의 옷자락과 같은 산등성이에 걸쳐있는 오로라 등의 이미지를 조형화 하였다.

작품의 기능에 있어서는 오로라의 느낌에 맞게 장식조명등으로 제작하였으며, 주재료는 철, 황동, 적동, 아크릴을 사용하였다.

3.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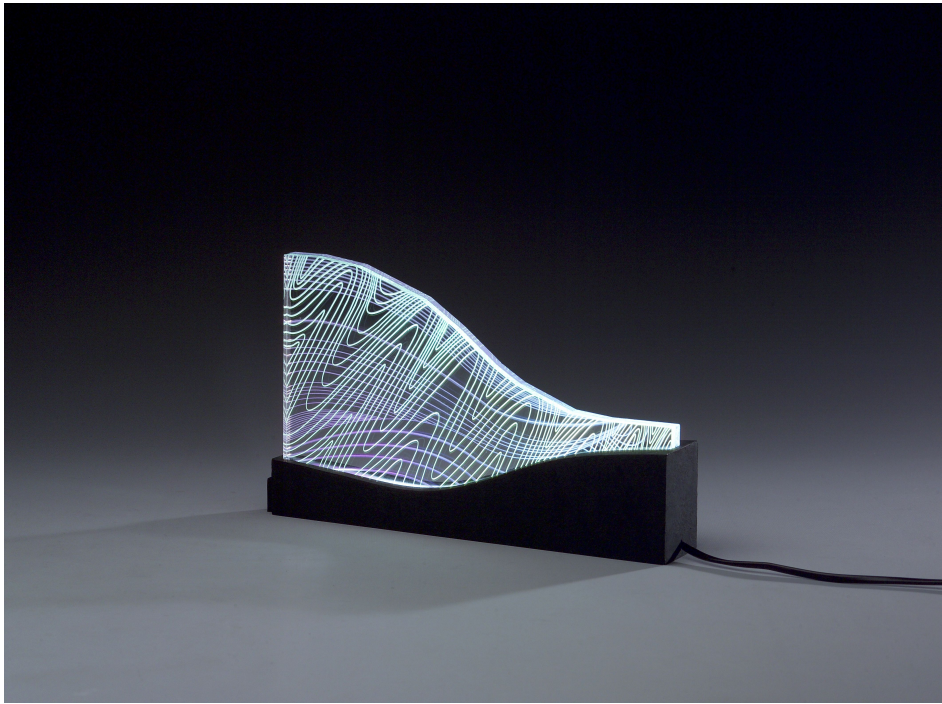


[작품 1] 해질 무렵....., 405×60×190(mm), steel, acrylic

[작품 1] 해 질 무렵.....

해 질 무렵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찬 기운을 헤치고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 하늘위에 수놓듯이 아름다운 오로라가 빙산위에 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태양빛이 반사되어 빙산이 붉은빛으로 물들었으며 그 위에 오로라가 춤을 추듯 넘실거리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햇빛의 각도에 따라 여러 색으로 변화되는 빙산위에 오로라가 걸쳐진 모습을 표현 해 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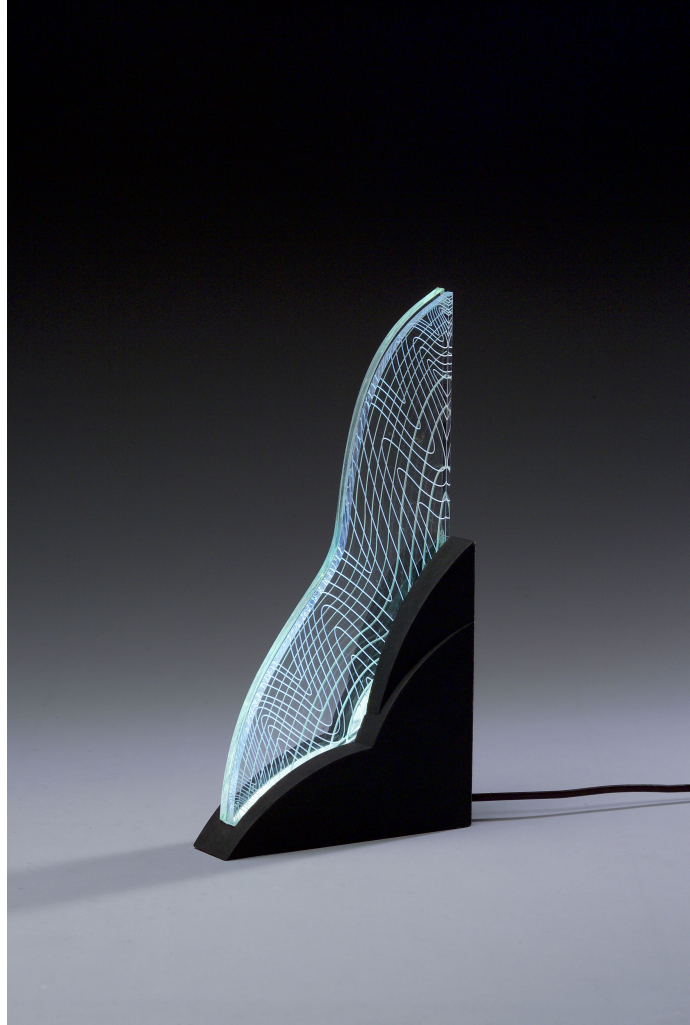


[작품 2] 고요한 아침, 340×60×130(mm), steel, acrylic

[작품 2] 고요한 아침

광활한 광야위에 은은하면서도 오색찬란한 빛의 오로라가 아침과 하루의 시작을 비추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고요하고 편안함 느끼게 한다.

여명의 여신인 오로라가 대지 만물에게 축복을 내리는 듯 화려하게 자신의 빛을 뽐내고 있는 듯 광야의 쓸쓸함과 허무함을 오로라의 고요하고 신비로움으로 뒤덮으려는 듯 여명의 여신은 더 높이 더 멀리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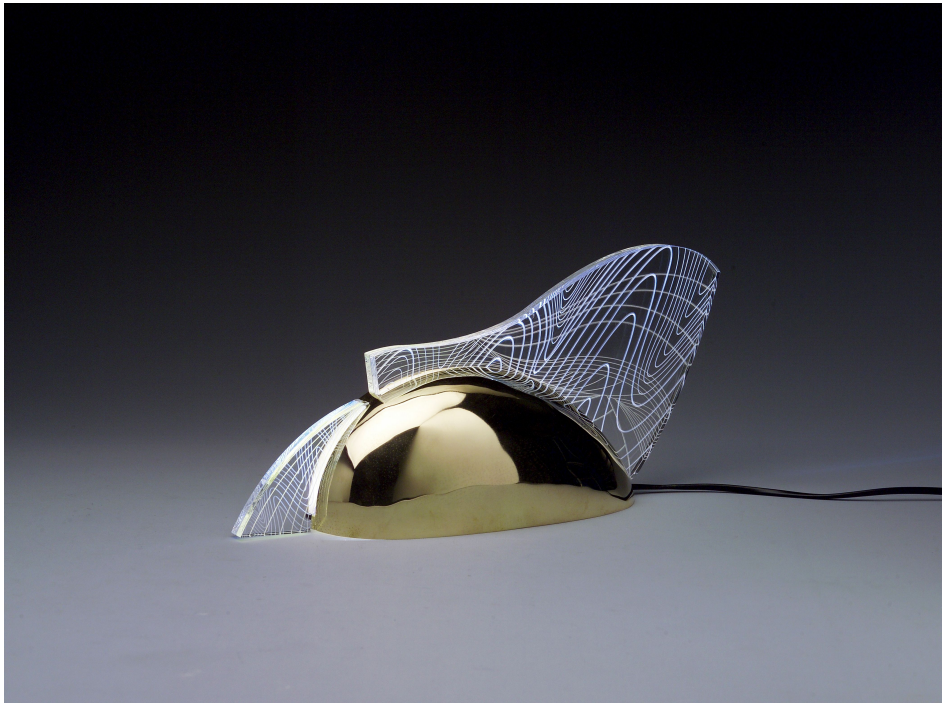
[작품 3] 여신의 머리카락, 190×70×370(mm), steel, acrylic

[작품 3] 여신의 머리카락

깎아진 듯 높으면서 고요하고 쓸쓸한 피요르드¹⁾. 이 피요르드를 타고 오로라가 마치 폭포처럼 밑으로 밑으로 떨어져 보이는 모습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에메랄드색 리본이 폭포를 타고 내려오듯 떨어지는 것을 형상화 하였고, 이는 마치 오로라가 여신의 머리카락인 마냥 아름답고 은은하게 빛이 흘러 내리는 모습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1) 노르웨이어로 "내륙으로 깊이 들어간 만"이란 뜻으로, 빙하로 인해 침식이 되어 만들어진 U자 또는 V자 형태의 계곡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형성된 하구. 너비에 비해 길이가 길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송네 피요르드는 길이가 무려 240km나 됨. 해면에서 1000m 이상의 절벽을 형성하는 곳이 많다. 해면 밑으로도 1000m가 넘는 심연도 많음. 노르웨이, 그린란드, 알래스카 남부, 칠레, 뉴질랜드 사우스섬, 스코틀랜드 등에 전형적으로 발달해 있다.



[작품 4] 동틀 무렵....., 420×130×190(mm), brass, acry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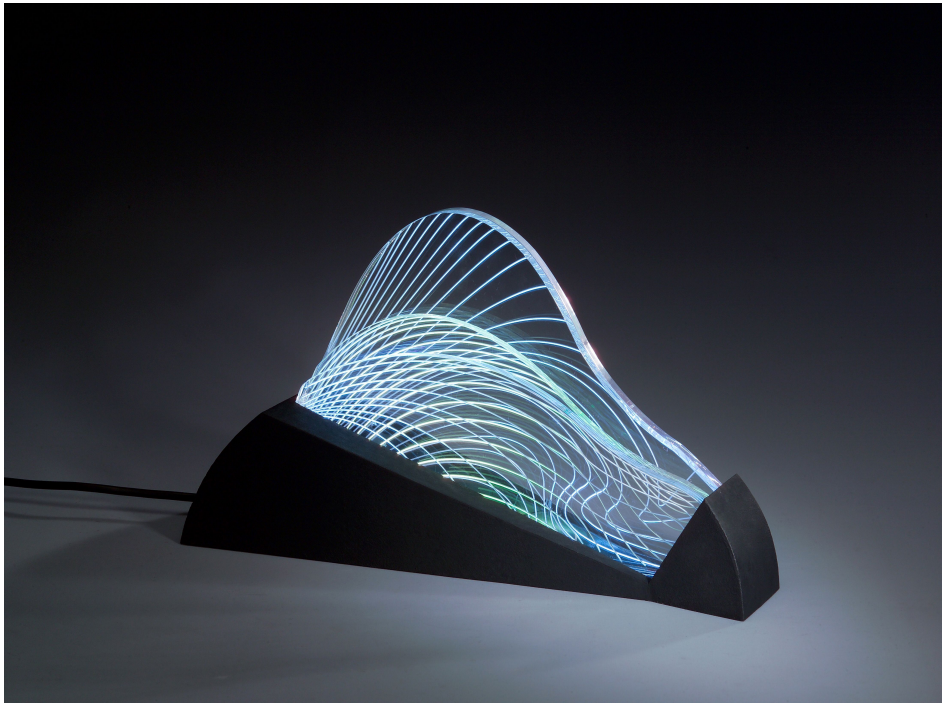
[작품 4] 동틀 무렵.....

동틀 무렵 아름다운 오로라...,

“Living in Alaska, it’s natural for one to believe that ancient magic dances in the shadows, the wind is enchanted, the old legends are true and in nature”. 오로라가 마법의 춤을 추고 있고 이 춤을 바라보는 바람이 매혹된다.²⁾

동틀 무렵 아침 햇살이 사방으로..... 사방으로..... 퍼지면서 빙산 고유의 순백의 색을 잇기라도 하듯이 황금빛으로 영롱하게 내뿜듯..... 자기의 화려함을 과시하듯이 오로라 파장이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 술래잡기라도 하는 듯 빙산에 걸쳐 요술이라도 부리는 듯 넘실넘실 춤추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2) Mindy Dwyer, 『A Tale of the Northern Lights』, Graphic Arts Center Pub, 2001,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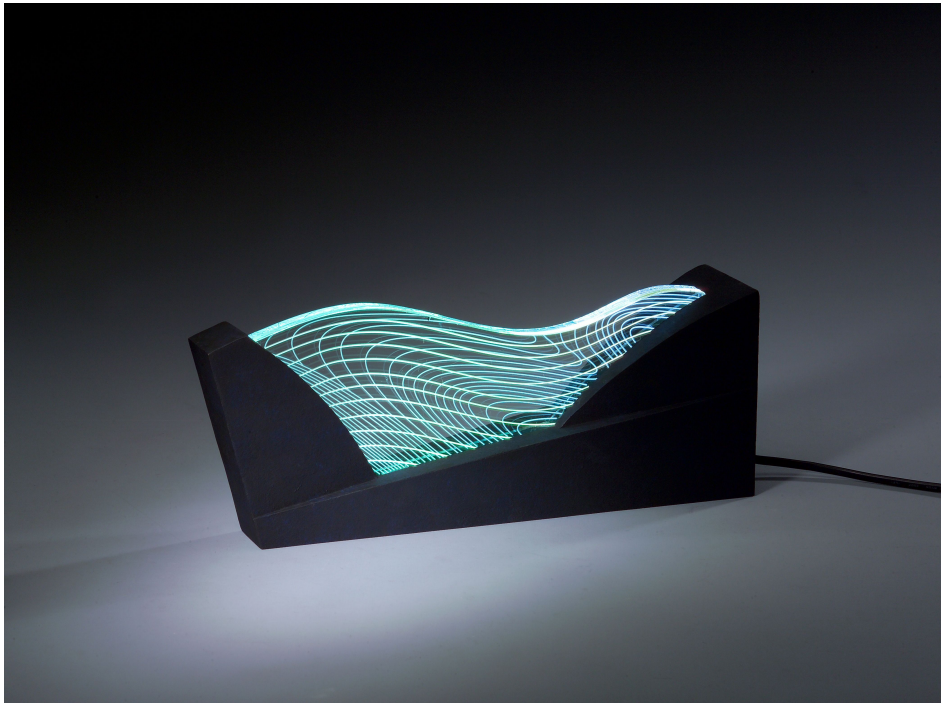
[작품 5] 찰랑거리는 여신의 드레스, 400×120×230(mm), steel, acrylic

[작품 5] 찰랑거리는 여신의 드레스

무슨 질감과 솜씨로 의상을 해 입었기에 속살 겹겹이 무늬져 오로라 환하게 뜰까/ 흘린 듯 따라 붙는다 옷자락을 만져본다 새벽...,³⁾

여명의 여신의 드레스라도 된 마냥 넓게 퍼져 찰랑거리며 흔들리는 듯...,
본 연구자는 작품을 통해 오로라를 여신의 드레스에 비유하여 은은하면서도 매혹적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3) 노명순, 『서천』 문학아카데미출판사, 1998 .p50



[작품 6] 피요르드, 350×80×120(mm), steel, acrylic

[작품 6] 피요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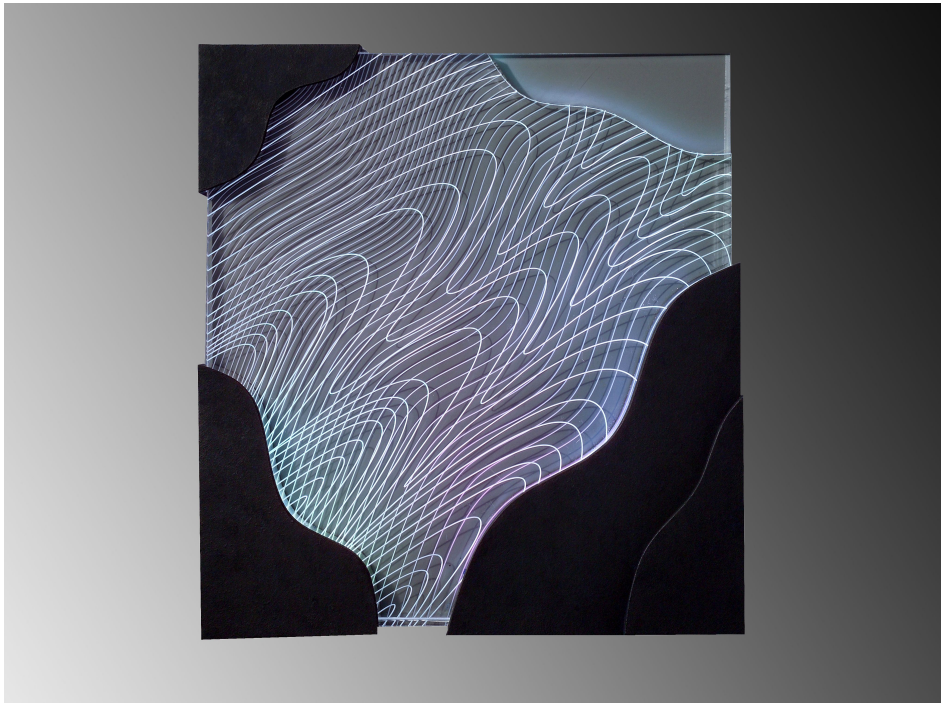
고요한 피요르드 사이에 에메랄드색 오로라가 폭포와 같이 흐려내리 듯 걸쳐져 자기의 자태를 뽐내는 듯하다.

문득, 이곳에 내려오는 전설이 떠올라 잠시 생각에 잠겨 본다.

피요르드의 전설을 주제로 한 이 작품에서 두 가지 이미지로 오로라를 표현해보았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양쪽 산등성이에 걸쳐있는 오로라를 여인들을 만나러가는 남자를 위한 다리, 두 번째 이미지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남자가 되어버린 폭포⁴⁾로 시각화 하였다.

4) 피요르드 전설: 피요르드 양쪽의 산자락에는 오랜 옛날 이곳에서 양치기를 하거나 농사를 짓던 흔적이나 집터가 남아있는데, 어떤 곳은 수십 길 낭떠러지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사다리로 오르내리며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수심 최저 800m 최고 1000m 이상이 된다고 하는 깊은 피요르드 물위를 유람선은 미끌어 지듯 긴 물 자국을 남기며 협곡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유람선 위의 갑판에 올라 협곡의 양쪽 산 정상에서 그림처럼 흘러내리는 폭포..... 물소리가 요란해 문득 오른쪽을 바라보니 총각(공자)폭포가 큰 줄기를 이루며 떨어지고 있었으며, 왼쪽 천길 낭떠러지 바위 위에는 일곱 가닥의 칠 자매폭포가 깎아지른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옛날 이곳의 전설에 의하면 오른쪽 총각(공자)이 맞은편에 있는 일곱 자매에게 차례대로 구혼을 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크게 상심하여 하루하루를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폭포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폭포 중앙에는 술병모양의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의 전설이 담긴 폭포가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며 지금도 울고 있는 것처럼 물보라를 일으키며 깊은 계곡 게이랑에르 물 속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작품 7] 계곡사이사이 바다, 400×400×25(mm), steel, acrylic

[작품 7] 계곡사이사이 마다

피요르드 사이사이에 오로라가 걸쳐져 있는 듯...

끝없이 적막하고 고요한 그곳에 오로라가 찾아왔다. 새로 떠오를 태양을 맞이하는 새 아침은 다른 아침보다 더 따사롭고 포근하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액자형식으로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대칭으로 오로라가 점차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간격의 패턴 변화주어 계곡사이사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작품 8] 오색찬란한 물방울, 290×390×60(mm), steel, brass, acrylic

[작품 8] 오색찬란한 물방울

색색이 오색찬란한 물방울들이 하늘위의 두둥실 떠다니며 그 빛은 햇살의 각도에 따라 춤을 추는듯하다. 이를 바라볼 때 환상적이며 몽환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오로라를 햇살의 각도에 따라 오색찬란하게 넘실대며 퍼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넘실대는 오로라를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여 퍼져가는 물방울에 빗대어 표현해 보았다. 또 각 부분 강약의 크기 조절을 주어 은은하면서도 강렬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싶었다.

Ⅲ. 결 론

본 연구자에서는 조형소재인 오로라를 표현함에 있어 오로라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이미지를 조명등에 적용하여 조형화 하였다.

본 연구자는 오로라가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다양한 분위기와 그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과도처럼 넘실거리는 모습, 커튼처럼 보이는 모양을 장식조명등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 형성된 오로라의 분위기를 지형, 지평선, 산 등과 어우름으로써 관람객으로부터 오로라자체가 부여하는 상상력에 입체적인 공간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작품들을 전개해 감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표현이 아닌 본 연구자가 느낀 정서와 감정을 담아 시각화하였으며,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사람들이 오로라를 바라보았을 때 느껴지는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감정을 담아내려고 하였다.

또한, 본 작업을 통하여 자연현상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 잊고 살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당연하다고만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고 잊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작업을 통하여 오로라라는 자연현상이 주는 아름다움이 충분히 반영된 장식조명을 디자인하고 제작 해보았으며, 감상하는 이들에게 환상적이고 아름다우며, 몽환적인 오로라 이미지가 마음속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노명순, 『서천』, 문학아카데미출판사, 1998.

노희주, 『춤추는 오로라』, 언어의집출판사, 2004.

루시 리처즈, 『아기곰 로리와 오로라』, 어린이작가정신출판사, 2004.

안병호, 『우주환경 물리학』, 시그마프레스, 2002.

졸린지, 『길들여지지 않는 날씨』, 한승출판사, 2003.

Mindy Dwyer, 『A Tale of the Northern Lights』, Graphic Arts Center Pub, 2001.

<논문>

김은주, 『환경친화공간의 미적 지원성 표현연구』, 서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06.

유혜은, 『날씨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장신구 조명연구』, 서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04.

<웹사이트>

<http://www.kma.go.kr>, 기상청 자료실.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ABSTRACT

Study on Metal Illuminator Imaged Aurora

Eunjin Kim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natural phenomena such as raining, snowing, wind and aurora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ffects a human emotion. The natural phenomena are closely linked to a human life.

In the present thesis, the aurora, one of the natural phenomena, was selected as a subject matter to design illuminators. Firstly, How the aurora affects the human emotion was discussed and then how I can implant aurora images into the illuminators was explained.

The aurora has the waves shape or the layered curtain shape dyed tinted blue, green and red. These dreamy and fantastic images were transferred to the illuminators. The organically repetitive patterns of light were used to express the wave and curtain image of the aurora. Tinted blue, green and red light changing with the passage of time were used to present dreamy and fantastic image of the aurora.

In the past years, the brightness was only important element of the

illuminators because the role of an illuminator was limited to the auxiliary role to help human activities. However, importance of design of the illuminators are gradually emphasized. Therefore, decorative and beautiful illumination is treated in the present thesis.